

# 정부 밀고 지자체 끌고... K-UAM 팀 꾸려 선도국 맹추격



조비 에비에이션이 개발 중인 전기 항공기 기체 모습.

/조비 에비에이션

## 2025년 상용화 개시 목표

###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모집 7개 컨소시엄 출사표  
물류배송·에어택시 등 서비스

정부가 정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는 2025년이다. 선도국 대비 UAM 사업을 2~3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속도로 선도국을 추격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비행시험장→준도심→도심 실증이 축약된다. 2035년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조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한다.

UAM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친환경, 저소음 교통수단으로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수소, 전고체 배터리 등 연료 전지부터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미래 공중 모빌리티의 핵심 축이다.

UAM 시장에서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은 UAM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R&D 지원 및 실증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또 제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항공국(FAA) 및 NASA의 주도로 UAM의 운용개념 및 발전 단계를 정립하고, 군의 신속한 기체개발과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또 민관협력 통합 실증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또 EU는 UAM을 포함해 유럽 내 단일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UAM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 ◆한국형 UAM 실증 사업 7개 컨소시엄 '출사표'

국토부가 한국형 UAM 실증에 참여할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자를 모집하자 7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운항),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UAM조합(운항), 다보이앤씨(교통관리), 드론시스템(버티포트) 등 UAM조합컨소시엄, 현대차(운항), 대한항공(기체·운항), KT(교통관리), 현대건설(버티포트) 등 현대차·KT 컨소시엄, SKT(운항), 한화시스템(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등 K-UAM 드림팀, 카카오모빌리티(운항), LG유플러스(교통관리), GS건설(버티포트) 등 UAM 퓨처팀, 민트에어(운항), 롯데정보통신(교통관리), 롯데렌탈(버티포트) 등 롯데 컨소시엄, 제주항공(운항), 대우건설(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이다.

그랜드챌린지 참가팀들은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지자체 권한 강화된 특별법 발의

UAM 산업은 기체(부품), 인프라, 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체는 기체 부품의 개발, 설계 및 제작, 항법·제어·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등

으로 구성된다. 인프라는 UAM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포트의 설계·건설, 항행·통신·전력(충전) 설비, 관제시스템, 보안·안전 설비, 3D 정밀지도 등을 포함한다. 버티포트의 유형은 규모에 따라 허브공항 개념인 버티허브, 지역 터미널 개념인 버티포트, 버스정류장 개념의 버티스탑으로 구분된다.

서비스는 운송, 기체 대여, 버티포트 운영, 항행·교통관리(스케줄링·모니터링), 운항정보(기상·지형), MRO(유지보수·수리·정비), 플랫폼(예약·연계교통) 등을 포함한다.

UAM의 활용 범위는 운송 대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물류배송(라스트마일), 에어셔틀, 에어택시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배송은 지역 물류센터에서 수취인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또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내 에어셔틀은 도심 내에서 정해진 노선을 운항해 버스·지하철과 유사하다. 특히 초기 운용에 적합하며 정기·부정기편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도시 간 에어셔틀은 도시 간 정해진 노선을 운항하며, 초기 운용에 적합하나, 운항거리 향상 기술이 필요하다.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택시는 승객 수요 발생에 따라 온디맨드 형식으로 운항하며, 택시와 유사하다. 또 높은 기술적 속도와 공역 규제 완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기준으로 2020~2024년은 준비기, 2025~2029년은 초기, 2030년에서 2035년은 성장기, 2035년부터는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 초기에는 거리를 100km로 정하고 조종사가 탑승해 유인교통관리 체계로 운항하고 5대의 기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임은 km 당 3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기체는 16대를 운용하며 km 당 운임은 13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UAM을 구성하는 5대 기술분야를 핵심적으로 제시했다.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자율비행·소음저감 등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 값기 힘든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배우 차인표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 채무조정제도
연체 0~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법원 신청 접수 지원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지원 (소송구조기관 연계)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제도	채무조정 지원으로 상환이 어려우며,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 신용복지컨설팅

- 신용컨설팅**  
- 전문컨설턴트와 1:1 전화상담
- 신용도우미**  
- 앱을 통해 신용관리 솔루션 제공
- 신용비타민**  
- 유용한 정보를 모아 알림톡 발송

신용회복위원회 APP(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1600-5500**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인터넷상담**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

## 운항고도 300m~600m '5G' 서비스 기대

▶▶ 1면 '도심 하늘 나는 차'서 계속

이통사들, 관련 기술 개발 박차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은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3차원으로 적용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특수 및 일반 목적의 트래픽을 각각 분리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KT는 구축한 항공망을 K-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중소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한다. 이들 업체와 시험 비행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 운영 노하우 등

을 축적할 계획이다.

KT인프라DX연구소장이종식 상무는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UAM 사업에서 고품질 상공 통신과 통신 기반 UAM 교통관리 시스템 'UATM'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과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했다.

/채윤정 기자